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김현진

“하지만 사장님, 설비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물량을 납기에 맞춰 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몇몇 직원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 대신 대부분의 직원들은 사장님이 좋은 대안만 찾아내면 자신들은 무조건 따르겠다고 했다. 이한중은 그순간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김 현 진

1

“어떻게 오셨지요?”

박상호 대리가 의자에 앉은 채 용무를 물었다. 방문객 표찰을 단 사람이 책상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다.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예?”

박 대리가 상대방의 아래위를 쓱 훑어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다름이 아니고 자동차부품 개발에 관한 겁니다.”

“부품개발? 무슨 부품인데요?”

방문객의 말에 박 대리는 개발부서 직원답게 대변에 관심을 보였다. 그의 눈은 이미 상대방이 들고 있는 서류봉투에 가있었다. 방문객이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뜬을 들이자 박 대리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에 있는 회의용 테이블로 그를 안내했다. 방문객이 명함을

꺼냈다.

“성용하이테크라는 조그마한 회사를 갖고 있는 이한중입니다.”

박 대리는 명함을 받아들이고 건성으로 한번 힐끗 들여다 본 뒤 ‘그래 개발품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쳐다봤다. 이한중은 두 손을 모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제가 이번에 개발한 건 황동기어입니다. 변속기에 들어가는.”

“뭘요? 황동기어요? 싱크로나이즈링 말입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이한중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나 박 대리는 이미 흥미 없다는 표정이었다.

“6개월 정도 시험도 해봤습니다!”

이한중은 다시 당당하게, 그리고 큰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자부심이 가득 차있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는 자동차 변속기어에 들어가는 2백여 가지 부품 중 유일하게 국산화를 못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황동기어를 처음으로 개발해서 한국 굴지의 자동차회사인 이곳 H사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이었으니까.

이한중의 확신에 찬 말에 박 대리가 다시 테이블로 몸을 당기며 관심을 가졌다. 이한중은 자신이 개발한 황동기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 대리가 손을 내저으며 그의 말을 중간에서 끊었다.

“사장님의 말씀은 대충 알겠는데요, 그 황동기어라는 게 그리 쉽게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죠.”

박 대리는 여사원이 가져다 놓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황동기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마디로 이한중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많은 기업들이 황동기어 개발에 뛰어 들었지만 다 실패했으며 자기 회사에서도 이 제품을 자체 개발하려고 수억 원을 투자했지만 결국 실패 했다고 했다. 변속기의 경우 철제 기어 등 다른 부품은 다 국산화가 되었지만 유독 황동기어만 개발이 안돼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업계에서는 황동기어를 국내에서는 개발 불가능한 제품으로 결론내린 상태라고 했다.

이한중은 박 대리의 말을 들으면서 은근히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다. 그는 자기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개발한 제품을 서울 장안동의 변속기 부품가게를 통해 수리차량에 장착해서 6개월 동안 시험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게 주인들이 제품을 계속 공급해 달라고 조를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이한중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중간에 불쑥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 대리님, 제가 개발한 이 제품을 일단 한번 써보고 나서 평가하면 어떨까요?”

“뭐요? 일단 써 봐요?”

박 대리가 어이없다는 듯 이한중의 얼굴을 멀거니 쳐다보고 있다가 다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설픈 개발품을 써서 위험부담을 안기 보다는 차라리 선진국에서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수입해 쓰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는 훨씬 속 편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수백억을 들여 신차를 개발해 판매하는데 황동기어에 문제가 생겨 봐요. 어떨 것 같습니까? ‘성용하이테크에서 납품한 황동기어가 나쁘다.’ 고 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소비자들은 대번에 ‘어느 자동차회사의 무슨 자동차가 나쁘다.’ 고 말합니다! 결국 몇 천 원 짜리 핵심 부품 하나 때문에 수백억을 들여 개발한 새 차가 전혀 안 팔려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 대리는 한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 개발부 직원답게 회사 입장에서 조목조목 짚어가며 이야기를 했다. 이한중은 박 대리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할 말을 잃었다. 하나같이 맞는 말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한중의 얼굴표정을 보고 박 대리는 안됐다 싶었든지 위로의 말을 덧붙였다.

“그러니 사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황동기어는 포기하고 다른 아이টে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회사에 가시더라도 아마 똑같은 소리를 들을 겁니다.”

점잖게 말을 마친 박 대리는 미련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 가버렸다.

박 대리의 말은 모두 사실이였다. 창원, 부평 등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도 박 대리와 거의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한중은 첫 걸음부터 두터운 장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렇다면 내가 개발한 이 제품은 뭔가? 내가 뭘 착각했던 말인가?’

황동기어는 국내개발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판정 났다는 박 대리의 말이 자꾸만 뇌리에 떠올랐다. 그러자 어느 한순간, 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슬며시 오기가 일기 시작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의지가 불타오르는 발명가 이한중의 기질이 살아나는 것이였다.

‘아냐! 나는 내가 만든 이 제품을 믿는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한중은 주먹을 뽏뽏 쥐었다.

한 달 쯤 지난 뒤 이한중은 다시 박 대리를 찾아갔다. 박 대리는 그를 만나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라는 반응을 보였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온 이한중이었지만 박 대리가 아예 사람대접도 하지 않는 데는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꺾꺾 눌러 참으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며 매달렸다. 그러자 박 대리는 노골적으로 꺾부력을 내며 경비를

불러 내쫓기 전에 어서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회사 부근에 얼씬도 말라고 했다.

이한중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 그는 박 대리의 책상에 붙은 비상 연락망에서 그의 집 전화번호를 얼른 머리 속에 넣고는 사무실을 나왔다.

‘두고 보라!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내가 누군데!’

회사 문을 나서며 그는 전장에 나가는 전투병처럼 전의를 다졌다.

며칠 후 이한중은 박 대리의 집으로 전화를 했다. 예상했던 대로 돌아온 것은 상대하기 싫다는 적대감 가득 찬 목소리였다. 마지막엔 심한 욕설까지 퍼부으며 자기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 이토록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이한중은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해 봤다. 자신이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자신이 박 대리를 인간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되지 않았다. 오로지 국산화 하지 못한 중요한 부품 하나를 개발해서 상용화하겠다는 일념일 뿐, 박 대리에게 무슨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서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박 대리의 전화 냉대에 은근히 치밀었던 화가 말끔히 사라졌다.

‘머잖아 박 대리도 내 심정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

이한중은 다음날 전화국을 통해 박 대리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낮에 가서 그 집을 확인했다. 그리고 밤에 다시 가서 집 앞에서 박 대리의 퇴근을 기다렸다. 하지만 첫날은 밤이 깊도록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밤이 너무 깊으면 만나봐야 이야기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한중은 11시 반 정도까지만 기다리다 돌아오곤 했다. 삼일째 되는 날도 박 대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디 다른 데로 진출 가버렸나?’

이한중은 하도 박 대리가 나타나지 않자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그는 하루만 더 기다려 보고 그래도 안 나타나면 회사로 다시 한 번 찾아가보기로 했다.

나흘 째 되는 날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박 대리가 가방을 어깨에 걸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한중은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박 대리 앞으로 다가갔다.

이한중을 알아본 박 대리가 우뚝 걸음을 멈추고 잠시 노려보더니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이 오던 길을 획 되돌아섰다. 이한중은 쫓아가서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박 대리님, 삼십 분만, 딱 삼십 분만 이야기 좀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애원하다시피 했지만 박 대리는 들은 척도 않고 황소처럼 그저 두벅두벅 걷기만 했다. 아예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한중은 그런 박 대리 옆에 바짝 붙어 서서 같이 걸으며 몇 번을 더 통사정해봤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이한중은 하도 기가 막혀 걸음을 멈추고 날카롭게 외쳤다.

“박 대리님, 삼십 분만 시간 좀 내주시오! 나흘 밤을 여기서 기다린 정성을 봐서라도 제발 삼십분만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내일부터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이한중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만큼 걸어가던 박 대리가 멈칫하며 그 자리에 우뚝 섰다. 그리고 잠시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돌아서서 징검징검 걸어 와 툭 내뱉었다.

“딱 삼십 분입니다? 아셨죠?”

그러고는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고는 큰길가에 있는 포장마차로 들어갔다.

“정말 이 사장님 같은 분 생전 처음 봅니다!”

박 대리가 이한중 앞에 소주잔을 놓아주며 말했다.

“귀찮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박 대리님밖에 어디 기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한중이 병을 따서 먼저 박 대리 잔에 소주를 넘치도록 따랐다. 그리고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려고 하는데 박 대리가 얼른 병을 뺏어서 두 손으로 이한중의 잔에 술을 따라주었다. 두 사람은 첫 번째 잔을 말없이 비웠다. 그리고 똑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잔을 채워 역시 아무 말 없이 마셨다. 이한중은 속으로 조바심했다.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야겠는데 지친 듯한 박 대리의 표정을 보니 얼른 입이 열리지를 않았다. 그런데 세 번째 잔을 따라놓고 담배를 피워 문 박 대리가 뜬금없이 말했다.

“낼 회사로 오십시오.”

“예?”

이한중은 처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다.

“연구소 직원을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연구소 직원?”

“일단 성능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아, 예! 고, 고맙습니다. 박 대리님!”

이한중은 박 대리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뿐입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귀찮게 굴지 않겠습니다.”

이한중이 술잔을 치켜들어 보이자 박 대리도 따라 들고는 잔을 부딪쳤다. 술을 한 모금 마신 박 대리가 잔을 든 채 말했다.

“아깐 미안했습니다. 이 사장님. 사실은 3일간 지방출장을 갔다가 지

금 막 오는 길이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자 피곤해 죽겠는데 사장님을 보니 그만 짜증도 나고 해서, 아무튼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박 대리님. 오히려 제가 너무 귀찮게 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잔을 부딪치고 쪽 마셨다. 주머니 받거니 하며 소주를 세 병을 마셨다. 이한중에게는 근래 맛보지 못한 술맛이었다. 그저 마음이 하늘로 뚱뚱 떠갈 것만 같았다. 박 대리도 귀찮은 짐을 벗어 훌가분한 듯 했다. 두 사람은 또 한 병의 술을 주문했다. 박 대리가 먼저 이한중의 잔에 술을 따르며 민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흘 동안 절 기다렸다는 게 정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한중은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과 그것으로 집 주소를 알아낸 방법을 웃으며 이야기 했다. 말을 다 듣고 난 박 대리가 몸을 움츠리며 말했다.

“아이고, 사장님 같은 분 꿈에 만날까봐 겁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말과 달리 상대가 그리 밋지 않은 듯 했다. 그리고 처음과는 달리 매우 즐거워 보였다. 그날 밤 이한중은 천하를 얻은 기분에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2

다음날 오후, 이한중은 연구소로 박 대리가 소개해준 강준삼 연구원을 찾아갔다. 박 대리가 어떻게 말했는지 강 연구원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러나 업무에 있어서는 아주 냉정하고 단호했다.

“내 임무는 테스트한 제품에 대해 좋다, 나쁘다, 평가를 내리는 것일

“뽀 납땜 관계와는 상관없다는 거 아시죠?”

“예. 잘 압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품을 개발해서 연구소 테스트까지 합격하고도 납땜이 안 되는 일이 허다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산의 어려움 때문이죠. 한두 개 만드는 것 하고 대량생산하고는 다르니까요.”

“예에. 그렇군요.”

이한중은 속으로 ‘산 넘어 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테스트를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다. 성용 하이테크가 H회사에 부품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테스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테스트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다 성용하이테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한중은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했다.

황동기어 테스트는 연구소의 일정 때문에 3개월 후로 잡혔다. 또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데 조급증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하며 샘플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3개월 후 이한중은 정성들여 만든 샘플 5개를 얇은 습자지에 고이 싸서 연구소에 건네주었고, 드디어 테스트는 시작되었다.

처음 보는 테스트 실은 대단했다. 백 평도 더 되어 보이는 넓은 공간에 갖가지 장비들이 모두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었다. 어떤 테스트기는 한대 가격만도 1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그곳에서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바퀴

가 돌아가고 있었다. 자동차를 24시간 6개월 동안 가동하면 10년을 주행한 결과와 동일하다고 했다. 그리고 24시간 모든 것이 자동으로 조절 되어 언덕길 올라가는 장치, 비 포장로를 달리는 장치, 저속과 고속으로 주행하는 장치, 계속 기어를 변속하는 장치, 사람이 5명 타고 달리는 장치, 빈차로 달리는 장치, 등이 있어 무인으로도 각종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황동기어도 그런 조건으로 6개월 동안 테스트를 받아야만 했다.

테스트에서 두 번만 불합격해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다. 중소기업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만저만한 시간과 돈의 낭비가 아니다. 거기다 테스트에 합격하여도 납품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선뜻 개발에 나서지를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드디어 6개월이 지나갔다. 이한중에게는 6년보다 더 긴 세월이었다. 장착했던 변속기를 테스트 장비에서 내려 분해했다. 황동기어는 테스트 전과 테스트 후의 상태가 면밀히 비교되었다. 그 결과 황동기어 기능이 합격 기준에 부족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한마디로 ‘불합격’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도 몇 번 겪으면 면역이 되는 것일까, 이한중은 테스트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마음은 의외로 담담했다. 무슨 제품이든 신개발품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개발과정에서 이미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정도에서 주저앉을 이한중이가 아니다!’

그는 속으로 다시 한번 오기를 일깨운 뒤, 결연한 어조로 강 연구원에게 말했다.

“문제점을 개선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뭐요? 다시 테스트하자고요?”

강 연구원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는 듯이 이한중을 쳐다봤다.

“예. 모든 문제점을 고쳐 올 테니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참, 사장님도! 여기가 어디 애들 소꿉장난하는 텐 줄 아십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로서는 모든 걸 걸고 개발한 신제품입니다. 돈도, 회사도, 제 인생도 여기에 다 걸었던 말입니다!”

이한중은 스스로 감정에 북받쳐 눈물이 나려고 했다. 하지만 연구원의 태도는 싸늘했다.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비공식테스트를 하고 또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소장님이 알면 전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만 나가세요.”

“하지만 이게 뭐 큰 죄짓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다 회사 위하는 일이고 국가 위하는 일 아닙니까?”

“사장님 정말 고집 세시네요! 이번 테스트도 개발부 박 대리가 신신부탁을 해서 마지못해 해드린 거란 걸 모르세요? 우리 연구소장님이 알아 봐요! 난 시말서감이요 시말서! 하루 이틀 걸리는 거라면 또 몰라! 6개월 씩이나 걸리는 테스트를 어떻게 또 비공식으로 합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제가 6개월 치 봉급에 해당하는 수고비를 드리겠습니다. 시말서 쓸 각오를 하고 한번만 더 봐주십시오!”

이한중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의 일로 인해 연구원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막상 말을 해놓고는 후회했다.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강 연구원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아니, 이 양반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여기서 당장 나가요!”

강 연구원은 이한중을 우악스럽게 끌어다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연구소에서 쫓겨난 이한중은 회사 마당 구석에 있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무기력감이 몰려왔다. 전신의 기운이 한꺼번에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자신만 쳐다보고 있는 종업원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눈앞에 떠올랐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사장이라는 사람이 신제품 황동기어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보니 자연 회사형편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직원들과 술국 한 그릇 가운데 놓고 둘러앉아 소주 한 잔 먹어본지도 까마득했다. 그래도 이한중은 자신이 개발하는 황동기어에 자신이 있었기에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자며 직원들을 격려하며 지금까지 버텼었다. 그런데 오늘, 그 신개발품은 성능 테스트에서 보기 좋게 불합격했고, 앞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볼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한중은 처음으로 뼈저린 좌절감을 맛보았다.

불합격 충격을 안은 채 기존 제품인 사출 금형으로 근근이 회사를 이어가면서도 이한중의 머릿속에서는 황동기어가 한시도 떠날 날이 없었다. 가장 어렵다는 합금기술에 성공해놓고 사소한 문제점 몇 개 때문에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만 더 보완하면 수입품을 능가하는 훌륭한 제품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 대기업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성능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연구소의 테스트가 필수 과정이었다.

몇 개월이 순식간에 흘러가고 한해가 저무는 연말이 되었다. 이한중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전화로 연말인사를 대신했다. 회사 형편이 어려워 무슨 선물을 보내 인사할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었다. 박 대리와 연구소 담당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자신을 위해 애써준 데 대해 감

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강 연구원에게는 한해를 보내는 마당에 망년 회 겸 소주라도 한 잔 할 것을 특별히 청했다. 그는 이한중의 제의를 차마 뿌리치지 못했다.

한 해를 이틀 남겨두고 두 사람은 무교동 낙지 집에서 만났다. 만나자마자 강 연구원이 먼저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한중은 오늘은 업무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소주나 한 잔 하자고 했다.

“솔직히 사장님한테서 전화 받고 조금 놀랐습니다.”

“아니, 왜요?”

“접때 테스트 끝나던 날, 그 일 뒤로 사장님이 두 번 다시 저를 찾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아, 연구소에서 쫓겨난 일요? 허허. 그땐 내가 말을 잘못했으니까 쫓겨나는 건 당연했지 뭐. 하지만, 내 이야기 한번 들어 보겠소?”

“...?”

“내가 처음 특허를 얻어 사업을 시작할 때 일입니다. 그런대로 반응이 좋아 주문이 꽤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만 우리 기술자 하나가 그 특허기술을 가지고 다른 공장으로 가버렸지 뭐니까.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바람에 그만 날 배신하고 만 거죠.”

“저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그 자를 찾아가서 ‘어찌자고 이러느냐? 내가 자네에게 뭘 섭섭하게 했나?’ 하고 따졌지요. 그런데 그 친구 대답이 걸작이더군.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는 말이 글썄, ‘우리 같은 놈 이럴 때 목돈 좀 쥐어보지 않으면 언제 잡아봅니까?’ 하더군요! 허허 참!”

“정말 못된 사람이네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아니, 소송을 했지요. 그 공장 사장을 상대로. 그러자 그 사장도 날 엉뚱한 사건을 걸어 맞고소를 했어요. 그 때부터 재판은 지루하게 계속

되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그런 가운데 나는 그만 지쳐 버리고 말았어요. 당장 소송을 유지해 나갈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거든요. 재판 2년 동안 거쳐 간 변호사만 다섯 명에, 변리사가 네 명이었으니까요. 결국 나는 서로가 고소를 취하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으로 참담한 기분이었지요.”

“정말 억울했겠습니다.”

“억울한 것도 억울한 것이지만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더군요.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마저도 증인 같은 도움을 청하면 나 몰라라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곧 그게 모두 다 내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평소에 내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경솔하지 않게 신뢰를 쌓았다면 나는 그토록 외로운 싸움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정말 혹독한 시련을 통해 삶의 좋은 교훈을 얻은 셈이지요.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사소한 만남이라도 내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인연을 소중히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이한중의 말에 강 연구원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자신의 잔을 이한중에게 권하며 먼저 개발품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그 황동기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한중은 연구원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대번에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정열에 찬 목소리로 황동기어에 대한 열정을 쏟아놓았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강 형! 이 황동기어 개발은 한국에서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국산화 시켜야 할 부품 아닙니까?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안 되면 제품 모델이 바뀔 때까지 영원히 국산화가 안 될 지도 모릅니다! 나는 돈 번다는 차원을 떠나서 이런 이야

기를 하는 겁니다. 내 비록 이름 없는 중소기업인이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산화에 성공해 수입대체를 이룬다면 그것도 큰 애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다시 한 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한중의 말에 강 연구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곤혹스런 표정이었다. 이한중은 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H자동차연구소는 아무나 입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도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야만 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앞날이 보장되는 인정받는 직장인데 누가 자신의 앞날이 망쳐질지도 모르는 일에 선뜻 나서겠는가? 이한중은 강 연구원 앞에 놓인 잔에 술을 따르며 다시 말했다.

“내 욕심만 차린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정 어려우면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테스트해 준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걸 배웠으니까요.”

“정말 사장님의 열정에 감명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도 당장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단숨에 쭉 들이켠 뒤 다시 말했다.

“아무튼 올해는 이제 틀렸고, 내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만 들어도 고맙소! 자, 우리 술이나 드시다. 지난 날 괴로운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을 위해 건배합시다. 자, 위하여!”

“위하여! 사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사람은 얼큰하게 취해서 헤어졌다. 이한중도 오늘 밤만큼은 흠뻑 취해 지난 1년간의 온갖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고 싶었다.

새해가 밝았다. 생각 같아서는 신정휴무가 끝나는 다음 날 바로 연구소로 강 연구원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이한중은 그러지를 못하고 며칠을 넘겼다. 괜히 신년벽두에 찾아갔다가 일은 일대로 되지 않고 담당자의 입장만 난처하게 만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황동기어에 대한 열정은 그를 오래 잡아두지 못했다. 새해가 열흘 쯤 지난 어느 날 오후 이한중은 간식거리로 우유와 빵 몇 조각을 사들고 연구소를 찾아갔다. 그런데 그를 본 강 연구원은 오히려 왜 이제 오느냐고 따지듯이 물었다. 이한중은 영문을 몰라 의아해했다.

“무슨 말인지, 잘...”

“아니 테스트를 하려면 샘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테스트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한중은 눈이 번쩍 뜨였다.

“예, 그러니 어서 가서 샘플을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서 그는 이한중을 한옆으로 데리고 가서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사장님이 오실 줄 알고 새해 테스트장비 운영계획에 변속기 테스트를 제일 먼저 잡아 놓았습니다. 변속기에 포크라는 부품이 있는데, 그 포크를 테스트하면서 황동기어를 끼워서 테스트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테스트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번 계획은 워선까지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맘 놓고 테스트를 해도 됩니다.”

이한중은 너무도 기뻐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강 연구원의 두 손을 꼭

잡는 것으로 고맙다는 말을 대신했다.

“시간이 없으니 일주일 안으로 샘플을 갖다 주세요. 지난 번에 잘못된 거 잘 보완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한중은 다시 한번 강 연구원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서둘러 연구소를 나왔다.

‘아!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도 무심치 않구나!’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이한중은 속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생각을 했다.

한걸음에 성수동 공장까지 달려온 그는 초창기부터 황동기어를 같이 개발해 온 직원과 함께 샘플 제작에 착수했다. 한 번 불합격한 경험이 있는지라 원재료부터 합금, 금형, 단조가공 공정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샘플을 만들어 나갔다.

황동기어는 소재의 특성상 0.5mm 사각을 400배로 확대시켜 완제품 품질 검사를 한다. 이것은 성냥개비 단면의 1/4에 해당하는 것을 400배 확대해 일반 사진 크기로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 제작과정에서 정밀도 등 점검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마침내 완제품을 만들어 냈다. 이한중은 다시 한번 최종검사를 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제품에 문제가 발견되었다. 직원이 가공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한 것이었다. 이한중은 눈앞이 캄캄했다. 납기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테스트를 못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테스트는 영원히 사라질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이한중은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 옆에 있던 연탄집게를 집어 들고 실수한 직원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직원도 회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 또 황동기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사장이 마구 내리치는 매질을 반항한 번 앓고 눈물을 흘리면서 맞기만 했다.

하지만 이한중으로서는 무한정 화풀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날짜에 맞춰 샘플을 제작해야만 했다. 그는 연탄집게를 팽개치고 직원을 일으켜 세웠다.

“아프지? 미안하다. 가서 약 사 바르고 집에 가 좀 쉬어라.”

“괘, 괜찮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그러지 말고 얼른 경리한테 가서 돈 달래서 약 사 바르고 쉬어!”

“아닙니다, 사장님.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 어디 한 번 보자.”

“정말 괜찮다니까요, 사장님. 그 보다 어서 샘플을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좋다! 시간이 촉박하니 우리 오늘부터 여서 먹고 자고 하자.”

그날부터 사장과 직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공장에서 잠을 잤고 밥 먹는 것도 미뤄가며 샘플 제작에 매달렸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만족할만한 수준의 샘플을 만들어 연구소에 갖다 주었다.

다시 테스트가 시작 되었다. 또 6개월이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한중은 이틀에 한번 꼴로 강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까?”

“예. 현재까지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통화가 무수히 이어졌다.

테스트 기간의 6개월이 이번에는 6년이 아니라 10년보다 더 긴 세월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강 연구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합격’ 이었다!

공식 테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과 보고서를 얻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강 연구원은 사본을 발부해주었다. 개발부 박 대리도 합격 소식을 듣고는 함께 기뻐해 주었다. 그는 상사에게 보고해서 합격 사실을 공식화 하겠다고 했다. 결국 황동기어 개발 성공 이야기는 대리에서 부터 과장, 부장을 거쳐 담당 이사에게까지 보고 되었다.

개발담당이사의 지시로 부장이 성수동 성용하이테크 공장을 방문했다. 공장을 둘러본 부장은 시설이 미비하지만 시설투자를 하면 되겠다고 했다. 이한중은 뿔 듯이 기뻐했다. 금방이라도 발주서가 떨어지고 회사는 팽팽 돌아갈 것만 같았다.

며칠 뒤에 담당이사가 이한중을 불렀다. 이한중은 가슴을 활짝 펴고 기분 좋게 회사로 들어갔다. 담당 이사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지금까지 너무나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공학박사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우리 회사에서도 개발에 실패한 제품을 사장님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개발한 것은 정말 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사의 말을 기분 좋게 듣고 있던 이한중은 ‘하지만,’ 이라는 이사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번쩍 들고 이사를 뻘뻘 쳐다보았다. 가슴이 쿵쿵거리며 뭘지 모를 불안감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이한중의 눈빛을 느낀 이사가 조금 안타까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됐지만 현재로서는 사장님의 제품을 납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산할 수 있는 설비도 없을뿐더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검사장비, 실력 있는 기능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어찌 마음 놓고 물건을 공급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사님!”

이한중은 무슨 말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이사가 손바닥으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압니다. 사장님의 그 안타까운 맘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걸 어떤 동정이나 사사로운 정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수입품 대신 사장님의 물건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몇 천 원 짜리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겨 공장의 전 라인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가 클레임을 걸 가능성도 높고요. 아무튼 현 단계로서는 사장님의 제품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는 말을 마치자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리고는 흥허케 자리를 떠버렸다. 멍해진 이한중은 한참동안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모두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하자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해!’

한참 만에 이한중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로 돌아왔다. 그러나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안가 성수동 공장은 문을 닫아야만 했다. 매출에 비해서 무리하게 개발비를 많이 투자한 것이 화근이었다. 사장이라는 사람이 현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분야 제품 개발에만 몰두한 것도 경영악화의 큰 원인이 되었다.

결국 이한중은 공장 짐을 싸들고 김포에 있는 형의 공장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몇 년 전, 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사직을 내놓고 독립하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나온 그로서는 쪽박을 차고 다시 들어가는 셈이어서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참아내기로 하였다. 이한중의 형도 그런 동생의 아픈 맘을 헤아려 선지 깊은 이야기는 묻지도 않고 넘어갔다.

형 공장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직원 중 몇 사람이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했다. 형편이 그 지경이니 말릴 수도 없었다. 그저 사장의 의지 하나를 믿고 묵묵히 따라나서는 다른 직원들이 이한중은 고마울 뿐이었다.

이한중은 형 공장 마당에 천막을 치고 황동기어를 소량 생산하여 시중 부품 점에 내다 팔아 근근이 명맥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런 판매로는 몇 몇 되지 않는 직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했고, 그 짝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는 직원회식도 한 번 해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한중은 대기업 계열 회사인 K 변속기 제조업체를 찾아갔다. K회사는 1,000여명의 직원에 연 매출이 1천억을 상회하는 중견 기업이었다.

그곳에서 기술부장과 외주부장을 거쳐 담당이사까지 만나 보았다. 이한중은 그들에게 황동기어 개발에 성공한 과정과 테스트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브리핑 했고, 도면만 주면 40일 이내에 개발비는 일체 받지 않고 샘플을 만들어 갖다 주겠다고 하고는 돌아왔다.

그러나 별 기대도 걸지 않고 있던 K회사로부터 며칠 되지 않아 연락이 왔다. 개발의뢰를 해 온 것이었다. 기실 따지고 보면 K회사 입장에서는 개발비도 일체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혀 손해 볼 것이 없었다.

이한중은 즉시 K회사로 가서 도면을 받아다 한 달 만에 샘플을 만들어 제출했다. 그 회사에서는 공식 테스트를 받았는데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에 들어가는 황동기어여서 테스트 기간이 길지 않았다. 결국 2개월 만에 테스트를 마치고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일주일 쯤 뒤 K회사로부터 조만간 공장 규모와 시설을 보기 위해 회사를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이한중은 테스트에 합격하고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납품을 못했던 악몽이 되살아났다. 이번에도 그렇게

허무하게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형과 의논해서 형의 공장을 제품 생산 공장인 것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마침내 그 날이 왔다. K회사에서 과장과 부장, 그리고 담당이사인 홍이사 세 사람이 회사를 방문했다. 이한중은 원래 자기 형 자리인 사장 자리에 앉아서 손님들에게 차 대접을 하고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했다. 다행히도 형의 공장설비가 성용하이테크 것과 비슷했기 때문에 K회사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공장을 둘러본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만하면 충분히 양산 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 곧 정식 발주를 내겠다고 했다.

며칠 후 협력업체 등록서류와 견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K회사로부터 그토록 기다렸던 발주서를 받았다. 그것은 어찌 보면 성수동 공장과 바꾼 발주서라 할 수 있었다.

대량 발주를 받은 날 저녁, 이한중은 직원들을 삼겹살 집에 집합 시켰다. 그는 먼저 발주서를 펼쳐들고 모두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몇 년간 그토록 기다렸던 발주서이다. 이 발주서 한 장 때문에 우리는 성수동 공장에서 여기까지 밀려왔다. 애들아, 이제 기회는 왔다! 우리 함께 깃발을 들고 끝까지 가자! 여기까지 와서 멈출 수는 없지 않느냐!”

이한중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직원이 번쩍 손을 들고 외쳤다.

“하지만 사장님, 설비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물량을 납기에 맞춰 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몇몇 직원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 대신 대부분의 직원들은 사장님이 좋은 대안만 찾아내면 자신들은 무조건 따르겠다고 했다. 이한

중은 그 순간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그것은 형 회사가 쉬는 일요일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평일에는 평소대로 천막에서 작업을 하다가 토요일 오후가 되어 형 회사 사람들이 일을 마치면 성용하이테크 직원들이 공장 프레스기의 금형을 황동기어용 금형으로 교체해서 그때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밤샘 철야 작업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이한중의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의 작전은 다음 날부터 바로 실천에 옮겨졌다.

주말 밤에 일을 할 때면 그야말로 시간이 금이었다. 아침밥을 먹어도 느긋하게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었다. 야식은 주로 라면을 먹었는데, 기계를 세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예 라면을 푹 끓여서 가위로 잘게 찢어버렸다. 새끼손가락을 그릇에 집어넣어 마실 만한 온도가 되었다 싶으면 젓가락을 쓰지 않고 후루룩 그릇 채 마셔버렸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아껴야 했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시간도 아까워서 사장인 이한중이 돌아다니며 직접 불을 붙여서 직원 입에 넣어주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참아가면서 일을 했다.

제품은 생산하는 대로 모두 납품 되었다. K회사 홍 이사도 제품에 대해 매우 만족해했다. 이한중 뿐만이 아니라 공장 직원들도 그동안 수입해 오던 제품을 자신들이 국산화했다는 자부심으로 자긍심이 대단했다. 그렇다 보니 작업능률도 올랐고 모두가 자신의 일인 양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열심히 공장을 꾸려 나가자 회사 형편도 점차 안정되어 갔다. 모아진 돈으로 마침내 공장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공장 짓는 비용과 시설자금 10억여 원은 은행대출을 받았다. 은행 대출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것이 큰 보탬이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극적이었던 것은 대출을 망설이는 은행 지

점장의 마음을 돌려놓은 일이었다. 이한중은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지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점장님! 제가 지금은 쥐뿔도 없는 처지이지만 반드시 성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제가 큰 성공을 거둬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나올 정도가 되면, 저는 반드시 지점장님의 도움과 믿음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노라고 꼭 밝히겠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그런 삶의 보람을 꼭 지점장님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 보람을 가져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몇 마디에서 지점장은 이한중의 내면에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는 불굴의 의지를 읽어냈고 대출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한중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공장 기공식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지금의 생산 공장이 성용하이테크 것이 아니라는 게 탄로 나고 말았다.

K회사 홍 이사가 노발대발해서 이한중더러 당장 회사로 들어오라고 호통을 쳤다. 이한중은 담담한 마음으로 K회사로 들어갔다.

“이 사장!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장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남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생각하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이한중은 할 말이 없었다. 묵묵히 홍 이사의 꾸중을 듣기만 했다. 그러다 홍 이사가 잠시 말을 멈추는 틈을 타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전국발명경진대회에서 최고의 상인 영예로운 대통령상을 받은 뒤부터 신제품개발에 사명감을 갖고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발명가 이한중이라는 제 이름 석자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으로 책임 져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일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

만, 이사님! 이 모든 것이 핵심기술의 국산화라는 저의 평소 열정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이한중은 가지고 간 공장신축도면을 펴놓고 그간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자 화가 나서 길길이 댕댕 흥 이사도 이한중의 진심어린 사과와 열의에 찬 공장 건설 설명을 듣고는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부장을 불러 지금 당장 현장에 가서 공장신축이 사실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한중에게는 내일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

다음날 강 이사는 완전히 화가 풀려있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이한중의 손을 잡았다.

“여태껏 공장 없이도 잘 했으니, 앞으로 공장이 완공되면 몇 배 더 잘 하시겠지요? 전 이 사장님의 성실함과 굳은 의지를 믿습니다! 공장이 준공되면 더 많이 밀어드릴 테니 우리 한 번 열심히 해봅시다!”

오랜 가시밭길을 헤쳐 온 성용하이테크가 마침내 본 궤도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이한중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이제 성용의 깃발은 올랐다! 멈추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만 나아가리라!’

소설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기업 소설이다. 등장인물 중 주인공 이한중만 실명이며 실제로 그는 (주)성용하이테크 사장이다. 김포에 있는 성용하이테크(www.sy-ht.com)는 종업원 100여 명에 연 매출 150억 원을 상회하는 우량 중소기업으로 자동차 중요부품인 싱크로나이즈링을 생산하고 있다.

이한중 사장의 경영철학은 그의 저서 『몸으로 배운 경영 의지로 사는 인생』에 잘 나타나 있다. 소설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도 그의 저서의 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썼음을 밝혀둔다.